

TRADE & ORIGIN REPORT



01

TRADE & ORIGIN 동향

- ① 한국원산지정보원, 통상 리스크 대응과 FTA 활용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 ② 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수출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 ③ 2025년 상반기 한국원산지정보원 대외협력 활동 현황
- ④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관세 10문 10답 안내”
- ⑤ 세계 FTA 동향
 - (1) 인도 “美와 무역협상 진전, 잠정 합의 임박”
 - (2) 인니 “EU와 이달 FTA 체결”美관세에 무역 다변화 속도
 - (3) 한-멕시코, FTA 2025년 체결 추진, 400여 한국 기업 현지 진출 확대 기대





TRADE & ORIGIN 동향

한국원산지정보원, 통상 리스크 대응과 FTA 활용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2025년,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우리 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규 확정된 「2025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반영에 따라,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정보 제공 등 트럼프 2기 체제에 따른 통상 리스크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①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②FTA-PASS기반 EU CBAM 관리시스템 구축(예정), ③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 ④FTA 활용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현장 중심의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다.

우리 원은 하반기에도 기업 수요에 기반한 가시적인 지원책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지속함으로써 FTA·원산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① 글로벌 신통상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사업 추진

2025년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품목별 차등 관세를 본격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에 따른 세율 차이, 통관 지연, 규제 불확실성 등의 통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 원은 이에 대응하여 2025년 '글로벌 신통상규제 강화 대응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전담 조직인 신통상규제팀을 신설하였다. 본 팀은 ①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통상정책 및 규제 변화, ② 비특혜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 판정사례, ③ FTA 및 원산지 관련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출기업의 통상 애로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우리 원 신통상규제팀이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 및 기업 지원 활동이다.

미국 비특혜 원산지판정 대응 사례집 발간

2025년 미국은 제301조, 제232조 등 특정 관세조치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특혜 원산지판정 기준인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기준의 모호성 및 CBP의 정성적 해석에 따른 추가 관세 부담 등이 기업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원 신통상규제팀은 미국 CBP 사전판정 사례를 분석한 ORIGIN CASE 시리즈(4건)를 상반기 중 발간하고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비특혜 원산지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1~4편)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실무적 이해도 및 원산지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하였다.

[ORIGIN CASE 예시]

The image displays four panels of an ORIGIN CASE report. The first panel shows product information for 'DO KEYHOLE (제8544.49호)'. The second panel details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including a table for '미국산 원산지 판정 기준' and a bar chart for '미국산 원산지 판정 현황'. The third panel illustrates the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process with a flowchart and icons for various manufacturing steps. The fourth panel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the '실질적 변형' process, including a table for '실질적 변형 판정 기준' and a bar chart for '실질적 변형 판정 현황'.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미국 CBP 사전심사 제도 활용 자료 제작 및 배포

미국 내 통관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CBP 사전판정 제도(Advance Ruling)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실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CBP 사전심사 개요,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실무 활용 자료가 제작·배포되었으며, 수출기업이 사전판정을 통해 비특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CBP e-Ruling 가이드 자료]



신통상 규제 및 美 관세부과 관련 정보 제공

주요국의 통상 정책 및 관련 규제가 기업의 원산지 관리, 수출입 통관 절차 등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규제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신속한 정보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신통상 규제팀은 매 분기 상대국의 수입규제 및 원산지 관련 이슈에 대한 기업 설문응답 결과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¹⁾

1)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인포그래픽 정보는 본 책자의 FTA ANALYSIS '신통상 환경 속 수입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해, 앞서 소개한 우리 원 신통상규제팀의 발간 자료들은 모두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origin.or.kr/>) → 발간자료 → 신통상 정보 탭에서 확인)

아울러,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IEEPA 등 주요 통상법령을 중심으로 한 미국 관세 부과 동향 정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美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및 원산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통상규제팀은 하반기에도 주요국 통상조치와 관련된 원산지 이슈에 대한 분석을 지속 수행하여, 우리 기업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하반기 추진 예정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美 비특혜 원산지판정 관련 ORIGIN CASE 정기호 지속 발간
- 주요국 비특혜 원산지판정 관련 주요 판례 분석
- 신통상 수입규제 및 원산지 이슈 관련 기업 특화 설문자료 제공
- 美 관세부와 관련 정보 업데이트
- 한-미 FTA 재협상 대비 USMCA 법령 및 협상 내용 분석

② 「FTA-PASS EU CBAM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유럽연합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의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對EU 수출기업은 EU 수입기업의 CBAM 인증서 구매, 과징금 부과 등 대응을 위해 수출 물품에 대한 철저한 탄소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나, 중소기업은 열악한 재정·인력 여건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관리 난이도가 높은 CBAM 대응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원은 FTA-PASS 내에 'EU CBAM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연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수출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해 다양한 경영정보와 탄소계수 등을 활용해 물품 단위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CBAM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EU CBAM 관리시스템은 제도를 분석하여 탄소배출량 산출을 위한 기초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관리부, 기초정보와 배출계수를 근거로 시설별·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량산출부, 기초정보와 탄소배출량 정보를 활용하여 CBAM에서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서류관리부의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때, 물품의 배출량산출은 EU CBAM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공식과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탄소배출량 산정공식〉

구분	공식
직접 고유 내재배출량	$(\text{직접 기여배출량} + \text{전구물질 직접 내재배출량}) / \text{상품 생산량}$ (SSEG, Indir = DirEmg + Mi × SEEi,Dir) / ALg
간접 고유 내재배출량	$(\text{간접 기여배출량} + \text{전구물질 간접 내재배출량}) / \text{상품 생산량}$ (SSEG, Indir = IndirEmg + Mi × SEEi,Indir) / ALg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구분		배출량 산정방법	
계산 기반	표준 방법	연소배출	연료 투입량 × 배출계수
		공정배출	원료 투입량 × 배출계수
	물질수지법	투입 활동자료 × 탄소함량 - 산출 활동자료 × 탄소함량 × 3.664	
측정기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통한 온실가스 측정	

FTA-PASS 내 EU CBAM 관리시스템이 서비스되면 탄소배출량 관리가 전산화되어, 제도 규정 준수는 물론 배출량 산정과 보고서 작성의 자동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국내 중소 제조·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 본격 시행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기업이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받아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요 FTA의 효과적인 활용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FTA 협정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이행 요건은 기업의 원산지 관리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원은 인증수출자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선정된 기업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인증물품에 대한 실무 적용 중심의 교육 ▲자율점검표 작성 실습 ▲모의 사후관리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와 인증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 사업〉

- 사업명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8월~12월
- 접수기간 :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지원자격 : 원산지 사후관리에 대비가 필요한 인증수출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법 : 선정기업에 지정된 컨설턴트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제공
- 지원내용 :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대비 및 모의 사후관리 점검을 통한 원산지 관리 능력 강화
- 사업수행 일정표

단계	세부단계	주요내용
컨설턴트 모집	컨설턴트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컨설턴트 양성과정 이수자 대상으로 참여 관세사 모집 : 2025. 7. 7. ~ 7. 18 • 필요시 참여 관세사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개최(7월~8월)
사업 공고	사업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고(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등 안내) : 2025. 8. 4.
신청 접수	신청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신청 및 접수(이메일 접수), 접수기간 : 2025. 8. 1. ~ 8. 31.

※ 상기 일정과 세부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주무부서 :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팀)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복잡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고, 원산지 관련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④ 「FTA 활용률 정보 관련 주요 발간물」 현황

「FTA 활용률 정보 제공 관련 주요 발간물」 현황

FTA의 체결은 수출입 기업의 비용 절감과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 실효성은 실제 협정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FTA 활용률은 협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 원 활용연구팀은 이러한 FTA 활용률을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 자료와 분석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주요 발간물로는 FTA 활용지도, FTA 수출증가품목, 수출증가품목 이슈리포트, 그리고 FTA 통계서가 있다.

〈2025년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활용률 관련 발간물〉



연간 발간물

「FTA 통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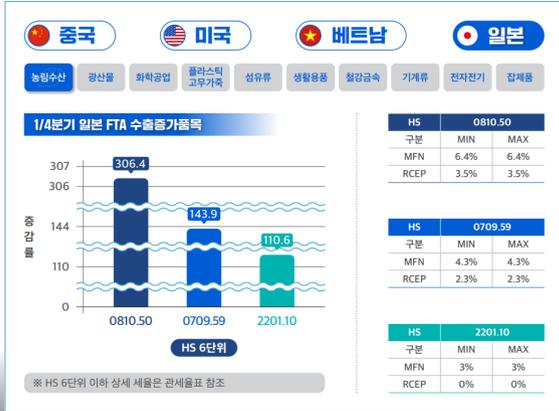
올해 처음 발간되는 연간 통계 자료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FTA 활용률 관련 정보를 한 권에 통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산업별 특혜활용률, 수출입 상위 품목별 FTA 활용 정보 등을 수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을 포함한 비교 지표와 MTI 3단위 수준까지 세분화된 품목 정보를 제공한다.



분기별 발간물

「FTA 활용지도」

2014년 7월 14일 국가 통계로 승인(승인 번호 134005)되었으며 분기별로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 FTA 활용 현황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분기별 발간물

「FTA 수출증가품목」

4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을 대상으로 MTI 1단위 산업군 기준 분기별 수출이 급증한 품목을 선정하고 관련 관세 정보를 제공한다.



분기별 발간물

「수출증가품목 이슈리포트」

수출증가품목 중 산업 동향, 정책 등 주목할 만한 배경이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FTA 활용 정보와 특이사항, 시사점 등을 제공하고 있다.

〈FTA 활용률 정보 제공 일정〉

발간물명	2025년도 1분기	2025년도 2분기	2025년도 3분기	2025년도 4분기
FTA 활용지도 FTA 수출증가품목	4월 발간	7월 발간 예정	10월 발간 예정	2026년 1월 발간 예정
수출증가품목 이슈리포트	5월 발간	8월 발간 예정	11월 발간 예정	2026년 2월 발간 예정

해당 발간물들은 모두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YES FTA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 <https://www.origin.or.kr/>
홈페이지 접속 → 발간자료 → FTA 활용정보
- 관세청 YES FTA 포털 홈페이지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홈페이지 접속 → FTA 활용정보 → FTA 활용률

우리 원은 수출기업이 복잡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수출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최근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의 관세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 실현을 위한 법령 제정에 이어, 수입 규제 강화 및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관세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을 근거로 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예측이 어려워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은 2025년 4월 30일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수출기업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트럼프 2기의 미국 통상정책 변화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관세청의 대응 방향 및 대미 수출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최근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 부과 동향과 대응방안, 비특혜원산지 기준 및 판정 사례와 품목분류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한국무역협회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국내 관세전문가 1:1 상담도 진행하였다.



사진 : 한국무역협회

세부 일정 중 비특혜원산지기준 및 판정 사례의 경우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권민경 팀장이 발표를 진행하였다. 미국이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포함한 모든 추가 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국내 수출기업에게 생소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권민경 팀장은 국내 수출기업에게 있어 비특혜 원산지 관리는 선택이 아닌 대미수출의 핵심 전략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원산지 규정과 실질적 변형기준 이해도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특히, 미국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과거 원산지 판정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앞으로 실제 수출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 제고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과 협업하여 누구나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철강제품」책자를 함께 배포하였다.²⁾

[행사 세부일정(안)]

시간	내용	발표자
	(Session 1) 미 관세부과 최신 동향	
13:00 ~ 13:30	미 관세 부과 동향 및 관세청 대응 방안	관세청
13:30 ~ 14:00	미국 통관 동향 및 수출기업 유의사항	미국 관세사
	(Session 2) 미 관세부과 대응 방안	
14:10 ~ 14:40	비특혜원산지 기준 및 판정 사례	한국원산지정보원
14:40 ~ 15:00	미 관세부과와 품목분류의 중요성	관세평가분류원
	(Session 3) 현장상담	
15:00 ~ 16:00	1:1 관세 상담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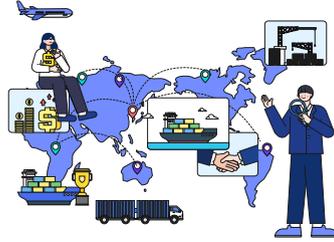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미국의 급변하는 관세정책 환경 속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준비해야 할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앞으로도 한국 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기업들이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FTA 원산지 실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다양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단 사례 확대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2) 2025년 6월 기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책자는 철강 제품에 이어 2편 자동차 부품과 3편 식품류까지 추가 제작되었다. 해당 발간 내용은 한국원산지정보원 발간자료 - 신통상 정보 - 동향 정보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상반기 한국원산지정보원 대외협력 활동 현황

2025년 상반기,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국내 기업의 신통상 정책 대응과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며, 관련 연구실적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였다.



〈對미 통상정책 대응 및 기업지원〉

날짜	행사명	주관
2025.03.13.	2025년 미국통상관련 지역기업포럼	대구세관 및 무역협회
2025.04.09.	미국 관세부와 관련 기업지원 대응방안 회의	관세청
2025.04.30.	미 관세정책 변화 대응 수출기업 설명회	무역협회
2025.05.22.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간담회 참석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2025.05.30.	2025년 (사)한국관세학회 정책세미나 및 준계학술발표 「美 트럼프 2.0 관세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제」	(사)한국관세학회· 대한민국 헌정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5.06.11.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대미 통상대응 설명회	대구세관
2025.06.18.	2025년 찾아가는 FTA 통상데스크	청주상공회의소
2025.06.19.	코트라 지방지원본부 실무자 통상대응 워크샵	KOTRA
2025.07.16.	코트라 미 통상정책 대응 관세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	KOTRA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 지원〉

날짜	행사명	주관
2025.02.24.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2025.04.01.	EFTA Workshop on FTA Preference Utilization	EFTA
2025.06.11.	섬유수출기업 원산지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FTA 활용수출지원 종합컨설팅」	서울본부세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원산지정보원
2025.07.29.	2025 APEC 국제원산지세미나	관세청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관세 10문 10답 안내”



관세청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 대미 수출기업이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질문을 분석하여 작성하였으며, 대부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담음

안내자료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질문 예시 ①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의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A. 해당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완제품 전체가 아닌, 실제 함유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함량 가치)에 대해서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2025년 6월 3일(미 동부시간 기준) 이전까지는 해당 함량 부분에 대해 제232조 관세 25%가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반면, 제품 내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 즉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MFN 세율이란, 미국이 WTO 체약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6.4일부터는 이러한 관세 구조에 상호관세 10%를 추가 적용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즉, 비철강·비알루미늄 함량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MFN 세율 외에 상호관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생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에는 추가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MFN 세율에 더해 상호관세 10%가 적용됩니다.

주요 질문 예시 ②

중국산 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추가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해당 물품이 한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50%의 관세율을 부과받지만,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77.5%~10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 CBP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상품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른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합니다.

이렇듯 원산지에 따라 세율 차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수출 전에 미리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들을 참고하여 원산지 판정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시) 철강 관세부과 시 미국 수입 세율 비교〉

원산지	MFN	제301조	대중국 추가관세		철강관세	상호관세	최종관세
			2025.2	2025.3	2025.6		
한국산	0% (FTA 적용 시)	-	-	-	50%	철강 제외	50%
중국산	0~10%	7.5~25%	10%	10%	50%	철강 제외	77.5~105%

주요 질문 예시 ③

미 관세당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이란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를 '원산지'로 판단하며, 구체적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와 정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미 CBP가 동 기준에 따라 건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 판정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담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책자를 품목별*로 제작하여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하였습니다.

세계 FTA 동향

① 인도 측 “美와 무역협상 진전, 잠정 합의 임박”



사진 : 뉴시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인 인도 측 관계자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현지 매체에 밝혔다. 인디아투데이, 인도 PTI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 관계자는 2025년 6월 4~9일 진행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생산적이었으며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

고 밝혔다. 특히 관계자들은 통신에 잠정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양국은 6월까지 잠정 합의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협상에서는 공상품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 향상과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이 논의됐다. 양국은 관세 등을 잠정 합의한 후 협상 범위를 확대해 9~10월 포괄적양자무역협정(B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25년 4월 인도 상품에 대해 26%의 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는 7월 9일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간의 관세 인상 유예 기간 동안 무역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최근까지 인도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었으며 양국 간 무역은 1900억 달러(약 260조 2620억 원)에 달했다.

② 인니 “EU와 이달 FTA 체결”, 美관세에 무역 다변화 속도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6월 8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달 내(2025년 6월)로 EU와의 FTA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thediplomat

그는 “인도네시아와 EU는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실질적 협상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EU로 수출하는 제품 80%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고, 비관세 장벽도 철폐될 것이며, 인도네시아산 신발, 의류, 팜유, 수산물의 유럽 시장 수출 접근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아이들량가 장관은 인도네시아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자국 자재 사용 규정을 비롯해 자동차 산업, 핵심 광물 무역 등에 대해서도 EU 측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EU와 2016년부터 FTA 협상을 벌여왔으나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FTA 협정이 체결되면 EU로의 수출이 3~4년 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망했다.

EU는 인도네시아 무역 상대 중 5번째로 규모가 크다.

작년 교역액은 273억 유로(약 42조3천560억원)이다. EU는 인도네시아에 97억 유로(약 15조496억원)어치 수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175억 유로(약 27조1천513억원)어치 수입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부과한 32%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2024년)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액은 382억 달러(약 52조93억원)이며, 인도네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144억 달러(약 19조6천56억원)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③ 한-멕시코, FTA 2025년 체결 추진, 400여 한국 기업 현지 진출 확대 기대

한국과 멕시코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유력 경제 전문 뉴스 매체 ‘엘 CEO(EL CEO)’는 지난 2025년 5월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라틴아메리카 지역 대표 김지엽 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김지업 KOTRA 라틴아메리카 지역 대표는 “한-멕시코 FTA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내 클라우드야 세인바움 멕시코 정부하에서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체결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약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국내총생산(GDP)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무역량 순위 22위의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의 제조업 강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기아,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한 40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운영 중이기에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멕시코 FTA 추진은 최근 국제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엘 CEO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멕시코에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또한 멕시코의 ‘플랜 멕시코(Plan México)’ 전략이 디지털화,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강점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멕시코가 이를 활용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협력 단계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멕시코 간 통상 협력이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시장을 다변화하고 교역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국제무역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